

말씀의 샘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로바서 12장 2절>

기독교 신앙 안에서의 변화는 가히 혁명적입니다. 본질 자체가 송두리째 바뀌어지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변화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거듭난다는 표현까지 씁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 골3: 10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의 삶과 가치관, 그리고 성품이 변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접붙여졌을 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 요15:4**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의 7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씨뿌리는 비유로부터 시작해서, 그 씨가 싹이 나고 자라기 시작할 때부터 방해가 되는 가라지예 대한 비유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자씨와 누룩비유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놀랍게 성장시키심을 내포하는 비유도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유는 믿음이 성장하면서 겪게 되는 변화의 과정을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듯 합니다. 천국에 합당한 사람, 천국의 열매된 백성은 어려움과 방해가 와도 변화를 멈추지 않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열매는 바로 변화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단순히 정책을 동반한 행위적 중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히 6:7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8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단비와 같은 은혜를 받고 그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흡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변화되는 열매를 올려 드려야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시는 이유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으로만 끝나기보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행 1:4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정해진 곳에서, 정해진 때까지 기다리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약속을 믿고 이탈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기다린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현장에서 들은 500명중에 380명은 오는 길에 이탈하였습니다. 그리고 마가 다락방에 최초로 모인 자가 120명이었다고 했는데, 그 모인 사람들 모두가 다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곳에서 끝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허락됩니다.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받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모세가 성막에 대한 계시를 받을 때도 7일간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다가 7일 후에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항상 하는 기도의 자리, 항상 드리는 예배의 자리를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자리가 최고의 변화의 자리인 것입니다.

딤후 4:3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4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떠돌이 신자, 철새신자, 초유만 먹으며 다니는 특별신자등 뿌리를 박지 못하고 떠돌아 다니면 외에만 물을 준다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항상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끊이지 않을 것이며 변화도 더딜 것입니다. 참 변화는 환경이나 상황을 바꿀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때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품고 기도하고 참아낼 때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여길 때 변화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 없이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천국의 시작은 씨뿌리는 비유를 통해 시작됩니다. 말씀이 심어 지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영적으로 깊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크심과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에스겔, 모세, 엘리야등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뢰가 더욱 커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3:29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나 바위를 쳐서 부스르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나 같은 예배의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듣지 못하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다메섹도상의 사도 바울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인생의 획을 긋는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현장에서도, 옆에서 소리를 함께 들었던 자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소경을 고칠 능력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명제이며 진리입니다. 하지만 “내가 능히 할 줄 믿느냐?” 라는 사실만 가지고는 역사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고침받을 사람이 얼마나 인정해야 하는가는 자기의 병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다고 여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실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할때만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주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믿음을 가진 자, 말씀을 크게 여길 수 있는 자만이 매 시간 시간마다 변화될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칭찬을 받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큰 명령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롬 12: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분명한 계시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분별입니다.

롬 8:30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신앙생활 자체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사람이 계속 변화되다가 주님 오실 때에도 영화로운 몸의 변화를 받고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변화되는 성도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변화된 만큼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2015. 10. 25 주일예배 이 강화 목사

2015. 11. 1 주일 예배

찬양과 기도 ----- 찬양팀 (인도-구수진 사모)

성 경 봉 독 ----- 창세기 12장 1~9절

말 씬 선 포 ----- 이 강화 목사

“아브라함과 예배 공동체”

축 도

두란노 소식 ----- 4면에 있습니다

예 배 안 내

주일 예배 : 주일 오후 2시

수요 예배 : 수요일 오후 7:30

금요 예배 : 금요일 오후 7:30

